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2) 대구 근대골목

대구=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이은상 작사·박대준 작곡 ‘동무생각’중에서)

지난 4월 중순, 학창시절 즐겨 불렀던 가곡 ‘동무생각’의 무대인 청라언덕을 다녀왔다. 30여 년 전 여고생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청라언덕은 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대구의 중심가(중구 동산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린 곳은 날씨에도 청라언덕에는 대구 출신 작곡가 박대준(1900~1986)의 첫사랑을 추억하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오늘날 청라언덕이 애뜻한 리브스토토리의 무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 대구 근대골목투어 덕분이다. 근대골목투어는 대구 읍성 주변의 1000여 개 골목에 스며있는 1000여 개의 이야기를 발굴해 5개의 코스로 엮어낸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방치돼온 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내 ‘보존’하고 이야기를 덧입혀 되살린 것이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구 중구는 죽어가는 도심이었다. 한때 21만명에 이르던 중구의 인구는 1987년 이후 급격히 줄어 들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최대 변화기인 동성로를 찾는 발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중구에는 근대의 유적이 살아 숨쉬는 골목이 있었다. 지난 2001년 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이었던 권상구(시간과 공간 연구소 이사)씨가 꼬불꼬불한 골목길에 숨은 역사를 끄집어 내 시작한 ‘대구문화지도 만들기’가 근대 골목투어의 씨앗이 됐다. 그 첫 번째 성과가 대구 근대사 가이드북인 ‘대구 신(新)택리지’다. 권 이사와 뜻을 같이한 시민운동가들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골목해설사를 길러냈고 ‘골목길 문화가이드 북’을 출간해 문화자산으로서의 골목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행정’이었다. 권 이사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인 대구 중구청은 사업성이 높은 제안에 예산을 냈다.

모두 5개 코스로 구성된 근대골목 투어는 1코스당 평균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골목투어를 제대로 즐기려면 1박 2일 정도가 좋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광객이라면 가장 인기가 많은 제2코스(1.64km), 일명 ‘근대문화골목’으로 만족해도 괜찮다.

골목마다 숨은 이야기

잘 꿰었더니 ‘보배’됐네

2001년 근대문화유산 발굴 ... 문화지도·해설사 양성 스토리 있는 5개 코스 ‘골목투어’ 작년 20만명 다녀가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최고 인기

2코스의 출발점은 청라언덕이다. 청라언덕의 선교사 주택을 시작으로 3·1운동만세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근대문화체험관 계산애가)~뽕나무골목~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영남대로~종로~진골목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각 구간마다 한 시대를 살다간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동산언덕으로도 불리는 청라언덕은 대구에서 기독교가 싹트고 서양의학이 발전한 유서깊은 곳이다. 대구 제일교회 정탑 뒤로 선교사 스위트(Switzer), 블라이어(Blair), 챔니스(Chameness) 주택이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돼 광주의 양림동을 떠올리게 한다.

2코스의 둘째 구간은 ‘3·1운동 만세길’로 일명 90계단이라고도 불린다. 이 길은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일본경찰을 피해 모여들었던 길목으로 주변의 계성학교, 신명학교, 대구고보 학생들이 3·1운동 집결지로 향하던 곳이다. ‘대구의 폼바르드’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길에는 1900년대 초의 대구 사진과 3·1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유명한 계산성당(셋째 구간·사적 제290호)이 나온다. 영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계산성당은 1899년 로베르

시부가 한옥으로 설계했지만 1901년 화재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1902년 파리외방성교회 소속의 프와넬 신부에 의해 붉은 벽돌과 첨탑의 고딕양식이 가미된 로마네스크 건축물로 지어졌다. 외부 만큼이나 아름다운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한복을 입은 성인들이 새겨져 있다.

계산성당 주차장에서 나오면 뒤편으로 이상화·서상돈 고택, 계산애가가 기다린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민족시인 이상화(1901~1943)는 1939년부터 194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단층목조 건물에서 살았다. 지난 2007년 도심 재개발로 허물어질 뻔했지만 시민들의 보존운동으로 철거를 면했다. 고택에는 이상화 선생의 곳곳했던 성품만첩이나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다. 빛이 바래고 손때가 묻은 책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책상과 장롱, 각종 그릇과 앨범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상화 고택에서 몇 걸음 옮기면 국제보상운동을 통해 국권 회복을 꿈꿨던 서상돈(1850~1913)의 고택이 나온다. 1850년 김천에서 태어난 서상돈은 구한말 보부상으로 돈을 번 거부로, 대구의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고택에는 63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오로지 나라를 생각하며 생활했던 민족운동가의 행적을 느낄 수 있다.



약전골목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2코스의 마지막 구간은 약전골목과 진골목이다. 약전골목의 뱀미는 바로 ‘마당 깊은 집’이다. 소설가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인 ‘마당 깊은 집’은 장관동과 종로, 진골목 일대를 배경으로 어린 길남이의 눈으로 6·25 전쟁 직후의 피난민 생활과 사회상을 그려냈다. 영생덕 만두전문점, 양곡배급소였던 C&S 편의점, 대구 학교소학교, 정소아과 의원 등 소설속의 무대들과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약전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2코스의 종착지인 종로진골목에 다다른다. 진골목은 ‘길다’의 사투리 ‘질다’에서 유래한 말로 긴 골목이란 뜻이다. 폭 2~3m 골목 사이로 각종 음식점과 카페점 등이 있다. 예전에는 대구의 유명한 정치인을 비롯해 기업인 등이 몰려 살았던 곳이다.

이처럼 골목투어는 대구시와 중구청, 민간 단체, 시민들이 의기투합해 이뤄낸 합작품이다. 무엇보다 도

시와 골목에 방치된 구슬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내 꿰어낸 건 근대골목의 경쟁력이자 자산이다. 도심문화탐방, 학생체험, 킬러폴 투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골목투어에는 매년 관광객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골목해설사의 안내로 시작된 골목투어는 첫해 참가자가 28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엔 무려 20만 5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구청이 지난 2008년 부터 골목해설사를 양성한 결과 현재 75명(한국어 57명, 외국어 18명)이 골목길을 누비고 있다.

또한 중구청은 근대골목투어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빈집과 폐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등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jh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골목투어’ 씨앗 뿌린 권상구 씨



“광주 양림동·오월길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구 근대골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27살 청년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됐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권상구씨는 지난 2001년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전공분야를 발휘할 ‘필드’를 찾지 못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대구를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지역에 눈을 돌렸다. 당시 대구 YMCA에서 활동하던 그는 ‘홈그라운드’인 동성로와 약전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던 중 자신처럼 ‘소외받고’ 있던 골목길에 주목하고 이곳에 스며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골목을 누비던 중 한 선배로부터 3대째 이어져온 한약방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지난 2002년 마음 맞는 사람들과 ‘거리문화시민연대’를 만들어 ‘골목의 귀족’을 찾는 일을 시작했죠.” ‘골목의 귀족’은 대구 근대사 가이드 북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신타택지’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00명의 조사원들이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예를 들면 약전골목의 가게들이 언제 생겨나고 한약방 주인은 언제부터 일하게 됐는지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엮었다. 이 때 발굴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의 근대골목투어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됐다.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자신이 근대골목투어를 개발했다고 보다는 ‘재발견’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대골목이 지금의 성과를 얻게 된 데에는 단지 스토리텔링 때문만이 아니다. 근대골목의 이야기들이 도시 전체로 퍼지도록 옛 대구 읍성을 중심으로 5개의 코스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권 이사는 대구 근대골목과 유사한 광주 양

림동 문화마을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 “양림동의 가치가 광주 전체로 확산되어야 하는 데 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는 10월 안공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 오월길 등과 연계되는 코스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광주의 지인들과 함께 양림동에서 문화전당까지 걸으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양림동에서 문화전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그냥 걸으면 단조롭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과 만나면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광주에만 있는 오월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역의 이야기를 캐내 스토리를 콘텐츠로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최근 권 이사는 일제 강점기 대구 최대상권지역이었던 북성로 재생에 올인하고 있다. 공구골목으로 상징되는 북성로의 폐가와 일본식 건물을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

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부터 대구 중구청과 공동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식 가옥 1000채를 카페나 레지던시, 디자인 회사 사무실, 게스트 하우스로 재활용하는 등 북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카페 ‘삼덕사회’와 공구박물관, 판 게스트 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경제적 재생까지 맞물려야 완성될 수 있어요.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마을 만들기나 도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곳은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바닥’(주민이 움직이지 않고 몇몇 활동가 중심의 사업이나 10년 미만의 짧은 사이클로 진행된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닥’까지 바꾸는 리노베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업그레이드 새마을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근대로(路)의 여행’이란 부제가 붙은 근대골목은 대구를 상징하는 제1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과 계산성당 등 100년 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근대골목 제2코스는 가장 인기가 높다.



▶청라언덕의 선교사 주택. ▼3·1운동 만세길(90계단).



◀계산성당. ▼이상화 고택.

